

교회소식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알림]

*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교회생활안내

-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주중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2부, 3부 예배, 수요일예배(오전 10시), 목요일성경기도회(저녁 8시)는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ungbu.or.kr/>
- 유튜브 주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M4eoM3ECERDTSQxXHUjNGw/live>
- 온라인 헌금계좌: 131-019-689782 신희 (대전중부교회)
(예. 홍00십일조, 김00감사, 정00선교, 유00주일)
- 청년회와 주일학교는 주일 오후 2시에 각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 새벽예배는 "개인새벽예배 목장집"(주보6~8면 참조)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주중에는 예배당 및 교회 시설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 교역자와 직원은 종전대로 업무를 하오니, 필요한 상담과 심방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 소천 - 2교구 양병수 집사 장모 (남2-4, 조숙 모친) / 26일(수)

[담임목사 동정]

- 노회임원회의 - 9월 1일(화) 오전 11시 / 노회사무실
- 총회세계선교회(GMS) 정기총회 - 9월 3일(목) 오전 11시 / GMS본부(화성)

섬기는 분들

▲월요당직 : 교윤설 목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목사 교윤설	오상욱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김수종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대용	최영일
	안성민(유년)	이정애(유치)				윤재룡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안철호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권영은	박선희	김효진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송은규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Since 1958. 09. 15

2020. 8. 30 (NO. 62-35)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일예배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부흥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윤종명 장로(2부) / 황덕순 장로(3부)
찬양	예루살렘(2부) / 할렐루야(3부)
성경	삼상 24:1-15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336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4부 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10:00 (본당)	목요일영성기도회 저녁 8:00 (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 드림 찬양단 * 기도: 이승준 형제 * 설교: 김종명 목사 * 성경: 단 1:1-2 <p>“하나님이 하셨습니다”</p>	<p>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일예배 : 오전 10시 설교 : 김종명 목사 • 목요일영성기도 : 저녁 8시 설교 : 조상용 담임 목사 <p>(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방송합니다)</p>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주일오후 성경읽기예배 오후 4:00 (본당)
- 각 처소에서 -	- 비대면 예배로 합니다 -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부		안내위원	
	2부	황덕순 장로		
	3부	임헌성 장로		
주일새벽	금주		식당봉사	금주
	내주			내주
주일오후	내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중현 김태순 박도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수요일예배	1부		차량운행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3호/ 김동윤 집사 010-6804-5574 권소영 장로 010-8070-3533
	2부			4호/ 유창웅 집사 010-6407-8515 5호/ 이윤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요일영성기도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2:00	초등부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회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31일)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화 (1일)	조상용 김해경 최영일 순정숙 송정숙
수 (2일)	고윤설 조정옥 공중호 심윤중
목 (3일)	이영학 안중근 국은희
금 (4일)	임헌성 오상옥 이연옥
토 (5일)	황덕순 이은진b 이종옥
주일 (6일)	전용주 권연옥 임영숙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김명순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종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 당	시 간	장 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 도 실
화	교회, 선교, 종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 도 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 도 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일영성기도회	자녀 8시~10시	본 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옥 권사	밤 12시~4시	한 나 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 도 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 도 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31일(주일)	1일(월)	2일(화)	3일(수)	4일(목)	5일(금)	6일(토)
성경	렘52-애2	애3-5	겔1-3	겔4-8	겔9-11	겔12-14	겔15-17

♣ 환우

☞ 1교구

* 유덕자 권사(송촌1, 김동춘 집사 아내) - 대퇴부골절 / 대전 웰니스 602호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당회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 분	내 용		기간	사 역 목 표	담 당 자
신앙성장 과 정	학습·세례 교육		3주	신 앙 교 육 강 화	담 당 자
	교 리 생 활 공 부		1년	1 학 기 : 교 리 편 2 학 기 : 생 활 편	담 임 목 사
	가 정 사 역 학 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 혜 경 사 모
	제 자	제 자 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 구 목 사
	훈 련	사역반	1년	사 역 자 양 육	담 임 목 사
	목 자 훈 련		매주	목 자 훈 련	각 교구 교역자
	양 육 1 단 계		5주	공 동 체 를 통 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 당 자
	회 복 수 양 회		1박2일	내 적 치 유	담 당 자
	양 육 2 단 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 험 하 기	담 임 목 사
	증 보 기 도 학 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 당 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 당 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전도사
목요 전도	전도훈련·지역전도		매주	지 역 복 음 화	고 윤 설 목 사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시온	이종운	김예원
주일 1부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9월 행사 안내

* 20일(주일) / 교회설립기념주일

천강민 협력선교사(몽골)

사랑하는 몽골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사는 이곳 몽골과 저희를 보내놓고 묵놀아 드리는 기도와 귀한 헌금으로 함께하고 있는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예배로 모이지 못했던 성도들을 2주 전부터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에는 수련회로 모였고, 지난주부터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20여 가지의 사항들을 준수하며 50명 미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찍던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허용된 인원이 넘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비록 핸드폰으로 찍는 것이지만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을 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그들이 감격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저희의 선교 전략을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자!' 교회는 전도와 양육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해지는 것을 알고 있는 저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소그룹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기도의 문을 우리가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 1) 몽골에 코로나 19가 잘 예방되도록
- 2) 새롭게 번지기 시작한 유행성 출혈(페스트)이 소멸되도록
- 3)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 4) 새롭게 시작하는 소그룹이 무한적으로 확장되도록
- 5) 선교센터를 위한 아파트나 사무실이 구입되거나 임대비가 해결되도록
- 6) 몽골의 국경이 하루속히 열려지도록

선교 및 돕는 기관

♣ 파송선교사

-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인 사역(부천)
-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 버여, 총통체책 / 몽골
-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온) / 베트남
- 김현숙 / 태국

♣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

-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 이성울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 싼띠팝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후원교회 및 기관

- 가야곡중부교회
- 옥천각계교회
- 대전시기독교연합회
- 대전성시화운동본부
- 두란노아버지학교
- 군선교연합회
- 주바라기선교회
- 대전기독교방송
- 대전극동방송
- 대전CTS방송
- 기독교타임즈
- 총신대학교
- 대전신학교
- 동대전중학교
- 가양중학교
- 명석고등학교
- 내륙흥 노인회
- 가양2동 노인회
- 신도 노인회
- 더퍼리 노인회
- 비래1,2 노인회
- 내봉 남,녀 노인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창18:26-33)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해롭고 위협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차별하여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역차별법'이라고 한다. 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5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자.

1. 차별금지법은 사회적인 합의를 무시했다.

차별을 금하는 항목인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23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단어들이다. "성별"과 "성적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란 단어를 살짝 끼워 넣어 비정상적인 관계도 인정하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성별을 이렇게 정의하라고 그랬나? 우리는 합의해 준 적이 없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반대한다.

2. 차별금지법은 그릇된 성(性) 의식을 퍼뜨린다.

성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성에 대한 의식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성을 자신이 결정하게 하자는 '젠더이데올로기'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조기 성애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젠더이데올로기라는 그릇된 성(性) 의식을 확산시켜, 사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찬성할 수 없다.

3.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

법은 국민의 법감정과 의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법을 신중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결국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길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 특히 동성애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다.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의 질병이며 신체적 질병을 가져온다. 유독 에이즈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균으로 무상치료를 준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에이즈 환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4.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등 각종 자유마저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고 외부에서 성경에 근거한 성 윤리에 대해 강의와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차별금지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없게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 학교, 행정, 문화, 종교,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리며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5.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한다.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보면 27장 중에서, 12페이지부터는 차별금지법 제재에 대한 규례와 이를 어기면 어떻게 징벌하겠다고 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차별금지법의 전체 내용 중에서 1/2이 넘는 분량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집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관마다 인권센터를 두고 담당자를 세워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차별적인 발언이나 교육, 행위 등이 발생되면, 고소·고발의 남발로 이어져서 국민 상호 간의 불신과 사회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아이러니하게도 '역차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소수를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는 명분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불평등 법이요, 진짜 차별법이다.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인권을 가장한 악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4일(금)	찬 213장	민 3:5-13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언급하셔서 각자 역할에 대해 혼란이 없게 하셨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를 구별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직무를 돕게 하셨으며, 회막에서 시무하며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게 하셨습니다(7~8절). 또한 레위인을 모든 지파의 맏아들로 택하시고, ‘내 것’이라고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12~13절).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당시 장자를 치심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참조 출 12:29). 다시 말해 레위인을 모든 지파의 맏아들로 삼으셔서 구별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지파 역시 거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모든 생명이 거룩함을 입고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일(토)	찬 595장	민 3:14-39	생후 일 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레위 자손의 성막 관리와 봉사 임무를 맡기기 위해 모세에게 레위 가문과 종족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므라리의 자손 중에 일 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고, 게르손 자손은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에게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 휘장 등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맡은 임무는 성소 내부의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31절). 이처럼 성막과 제사를 섬기는 일은 직무와 역할에 의한 구분이지, 특별한 자격과 능력에 따라 나눈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무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맡겨졌습니다. 간혹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과 사역을 이루는 데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사역의 경중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 받은 은혜대로 맡은 일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6일(주일)	찬 50장	민3:40-51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 처음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해 레위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속하기 위한 속전으로 1인당 5세겔씩, 총 1,365세겔을 내야 했습니다(46~47절).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장자들이 대표로 죽어서 구원을 얻게 됐는데, 백성 전체가 구원받으려면 부족한 레위인의 수만큼 대속의 속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선언을 바탕으로(41, 45절), 장자, 레위인, 이스라엘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셨습니다. 결국 속전은 구원을 위해 치러진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참조 딤후 2:14).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자신의 것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강희주(김종분) 공종호 김경덕(이수진a) 김동춘(유덕자,김은지) 김수중 김연수

김영미 김영술(최진숙) 김영천(남정혜) 김옥단 노정남(조정옥) 도소재

박노태(최영란a) 박영만(임형숙) 백규현(양미숙) 성근영(김옥란a) 손정숙

송경호(김옥희a) 송낙수(송정숙) 송봉우 송순례 안철호(이영숙a) 유현아

윤상덕(양길용) 윤종명(전숙인) 이수진b 이신순(서정자) 이율성 이은희

이인창(임유례) 이정아 이종덕 이종훈(이지연a) 이창익 인치경(김영재)

임현성(유정화a) 조규연(서정순b) 조상용(김혜경) 주경애 최윤희 최현순 함수경

감사헌금

고윤설(박혜란) 김경희 김다빈 김동춘(유덕자) 김연수(김규남) 김영천(남정혜)

김형민(윤혜성) 김혜자 박영만(임형숙) 송낙수(송정숙) 오상옥(김진남)

이신순(서정자) 채기병(최영희) 최진수 하용호(문희정) 무명2

선교헌금

강희주(김종분,윤상희) 김동춘(유덕자) 김세현 김옥단 도소재 박노태(최영란a)

박덕천(강순애) 박민지 박상규 박영만(임형숙) 백규현(양미숙) 성근영(김옥란a)

성성식(권금자) 송경호(김옥희a) 송낙수(송정숙,송태준,송태양) 송봉우 송순례 유덕자

유은정 유현아(유시후) 윤상덕(양길용) 윤석의 윤종명(전숙인) 이길천 이래민 이서진

이영학(김성순) 이원명(우종선) 이율성 이은희 이인창(임유례) 이종훈(이지연)

이효진 인치경(김영재) 임현성(유정화a) 조상용(김혜경,조성환,조은혜)

조성일(유은정) 최윤희

온라인 현금계좌: 131-019-689782 [신협-대전중부교회]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31일(월)	찬 294장	습 3:14-20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	--------	-----------	------------------------

<p>비록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택하신 백성들의 수장이 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손을 늘어뜨리며 낙담하지 말고(16절), 장차 여호와와 같이 완성된다는 소망과 회복에 관한 약속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타국으로 흩어졌던 이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옥을 받던 이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p>

1일(화)	찬 350장	민 1:1-54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	--------	----------	--------------

<p>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지명하시면서, 이들로 하여금 모세의 사역을 돕게 합니다. 이같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 함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어떤 대열로 행군할 것인지를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도 예외 없이 전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자,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을 모세와 더불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해 보니 그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수는 모세와 아론의 힘만으로 통솔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용량을 초과하는 일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p>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2일(수)	찬 210장	민 2:1-34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	--------	----------	-----------------

<p>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규모였기에 행군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질서를 세우시며, 회막 중심으로 각 지파의 영역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가 회막을 향해 진을 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백성이 회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회막을 바라보며 생활해야 했음을 뜻합니다. 또한 모든 진영의 중앙에는 회막과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막의 위치가 모든 진영의 중심이었기에, 레위인들은 사면으로 둘러싼 타 지파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회막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든 진영의 한복판에 회막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거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성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임을 지켜 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p>

3일(목)	찬 212장	민 3:1-4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	--------	---------	-------------------

<p>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명령에 따라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라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네 아들에게도 제사장의 의복을 입혔습니다(참조 레 8:12~13).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 제사에 동참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각각의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다가 죽고 말았습니다(참조 레 10:1~2).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이 제멋대로 행동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예배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내 뜻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왕처럼 거룩함으로 구별돼,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p>
